

실물경제 불확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③

지금의 위험은 분산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신(Balance) 통신편드 랩

오늘의 날씨 | 구름많음/비/안개/전동번개 | 2℃/11℃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음력 2월 9일)

www.christiandaily.co.kr

제 1253호

“한국교회 미래목회를 위해서는”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공개강좌
김희권 교수 박영호 목사 강연

14일 오후 7시 반에 미래목회와말씀연 구원은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송실대 기 독교학과 김희권 교수, 박영호 포항제일 교회 목사 겸 미목원 원장을 초청해 강 좌를 진행했다. 사회는 김지철 전 소망교 회 담임목사가 맡았다.

먼저 송실대 기독교학과 김희권 교수는 ‘미래교회, 미래 목회를 생각하다’를 강 연했다. 그는 불멸의 인간 호모 데우스로 표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우려 를 표하며 첫 말을 뱉다. 그는 “4차 산업 시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물학적 수명 을 연장하려는 유사영생프로젝트가 펼쳐 질 것”이라며 “호모데우스는 21세기 바벨 탑을 축조하려는 시도와 같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그는 “하나님의 생명 창조 주권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 며 나아가 사랑하는데 존재 의의가 부여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AI기술을 통해 영생을 욕망하는 호모데우스는 인 간 존재근거를 하나님께 두려 하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도리어 그는 “인간의 신 격화를 꿈꾸는 교만을 낳게 될 수 있다” 며 “하나님의 창조주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 고 했다.

하어 그는 “세상이 하나님을 배제한 바 벨탑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가꿔야 한다”며 “여기가 기독 교의 새로운 선교지여야 한다”고 역설했 다. 이른바 “세상의 모든 영역을 미 전도 영역으로 설정하는 ‘공적 기독교(public Christianity)’”를 그는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 기독교는 구약의 예언 자적 울부짚음을 외면하고, 사회변혁 보 다 개인 구원에 치우친 경향이 강했다”며 “양심을 찢는 회개 촉구 설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강조한 예언자적 영성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그는 “한 국 기독교는 사회 영역에서 적폐 기독교

세력의 옹호역할만 한다”는 일각의 비판 을 제시하며, “건전한 사회 변화에는 항 상 뒷전”이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세속적 가톨릭으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소극적 경건주의로 갈라졌다”며 “그 결과, 교회만 하나님의 영토로 보고 내세구원에만 관심 갖고, 나머지 현실의 사회개혁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교회는 기독 교의 사사회, 곧 개인구원론에서 벗어나 공공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캐나다 성직자 리차드 존 뉴하우스를 빌려, “기독교의 광장 탈출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는 본질적 위기에 봉 착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그는 “정부의 본질은 통제와 자기 복종을 강간으로 두 고 있는 만큼, 법적 강제집행 위협을 가 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광장에서 목소리를 잃으면 정부는 신앙의 공공자 역할을 자인하게 될 것”이라 경고 했다. 다시 말해 그는 “정부는 국가를 향 해 시민들이 예측될 것을 요구하는 신앙 자 역할을 자처할 것”을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늘 날 공적 담론참여를 촉진시키는 말이 아 니라 독단, 독선, 계도화된 언어집단 등과 동일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그 는 “공적 기독교는 자신의 신앙술어를 세 상언어로 성육신시켜야 한다”며 “세상언 어를 통해 하나님나라복음의 진수를 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언으로 그는 “4차 혁명시대는 교회 는 정통기독교신앙을 기초로 과감히 세상 한반판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공적 교회로 환골탈태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을 상 대로 복음을 증거 하는 데 고치지 말고, 시장과 일터, 광장으로 나아가 기독교신 앙의 공적 유익과 혜택을 공중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4차 산업시대, 영생을 선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 다”며 “인간의 피조물적 연약성을 과학기 술로 극복하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되 공 적 신앙으로 참다운 영생의 길을 공공연 히 제시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어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 겸 미 목원 원장이 강연을 전했다. 강연서두 에서 그는 미국의 시인 겸 사회운동가 Muriel Rukeyser를 인용해, “우주는 원 자가 아닌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고 전했 다. 너와 나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서 펼쳐 지는 이야기가 결국 세계임을 말한 것이 다.

이어 그는 “교회 공동체란 유기적 생명 체”라며 “개혁을 위한 과도한 비판적 표 현과 관념적 과격성은 도리어 개혁을 멀 어지게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목회 현장의 이야기와 동떨 어진 이야기는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우 려했다. 물론 그는 “감시와 견제는 필요 하다”며 “이런 노력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 공동체를 만들수 있을지는 의문”이 라고 표명했다.

또 그는 “대형교회를 향한 비판은 필 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인터넷 언론 을 통해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등에 대한 과격한 비판은, 도리어 교회 생태계의 약 자인 중소교회의 활력을 떨어 뜨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않는가’라는 목소리만 과잉일 뿐, 정작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는 부재”한 인터넷 언론의 현실을 되짚었다.

하어 그는 “당회, 노회, 총회 같은 조직 은 분명 필요하지만, 유기적 생명력을 담 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도리어 그는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청계천의 김 진흥, 청량리의 최일도 목사들이 비제도 권 영역에서 활동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 다”며 “90년대부터 강남 대형 교회 소수 목회자에게만 시선이 집중됐지만, 역설적 으로 교회 밖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한국



구세군 ‘건전생활’ 캠페인 벌여 지난 14일, 구세군 한국군국(김필수 사령관)은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건전생활 캠페인을 전개했다. 매년 3월 전국 각지에서 사치 풍조 추방과 절제 운동을 촉구 하는 가두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구세군 건전생활 캠페인은 1921년 3월 금주, 금연을 강조하는 구세군 신론 특집호 발행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전국적 캠페인 중 하나이다. 2019년 올해에는 구세군 9개 지방본부를 중 심으로 기존의 생명, 나눔, 보존, 갱신, 빛을 핵심가치로 하여 생명 살리기 운동, 나눔 실천 운동, 녹색 운동과 더불어 자발적 불련 운 동, 극기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 구세군 제공

교회 대표로 자리매김 되는 한, 교회의 대사회 이미지는 바다권을 해멜 수밖에 없다”며 “비제도권의 예수제자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춰, 그들의 사역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함”을 역설했다. 나아가 “그들로부터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대형교회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 한 일은 바로 이것”이라 힘주어 그는 말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에 대한 적극적 개입보다 그 방향타를 바꿀 필요가 있 다”고 제안했다. 즉 그는 “지역교회로 돌 아가 겸손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며 “인성없는 그리스도 다,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 없는 신학도 모두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바울은 세창조 신학을 말했 지만, 그 실천은 구체적 공동체 속에 이

뤄지는 사람에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 다. 이를 위해 그는 요한복음 13:34-35을 인용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

따라서 그는 “마태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빛과 소금되는 공동체의 삶을 통 해서 구현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끝으로 그는 “교회개혁 특히 세습반대, 중요하고 올바른 일”이라며 “세습을 철저 히 근절한다고 좋은 교회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는 “세습문제 같은 파안에 집중하기” 보 다 “그 안에 내재된 구조적이고 신학적 문제를 통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운동은 지 속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시작에서 지속 적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교회의 대외정치 문 제”를 꼬집으며, “여론의 주도는 60대, 남 성, 사회·경제적으로 기반을 갖춘 그룹 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하어 그 는 “성도 전체의 의견과 보수층들이 핵심 인 당회 간 의견 편차”를 말하며, “당회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지, 젊은 층,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열린 구조 모색”을 당부했다.

나아가 그는 교회 안팎에 흐르는 비판 적 여론에 대해서, “전체 개교회가 그리 스도의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전체를 조망하는 따뜻한 시선과 연 대”를 당부했다. 이어 강연을 마무리했다.

노형구 기자

“2018년 기준 신천지 교인 20만 2899명”

예장합동 이대위, ‘신천지’ 주제로 이단대책세미나 개최

예장합동 총 회 이단사이버대 책위원회가 주최 하는 이단대책세 미나가 새에덴교 회에서 14일 오후 2시에 개최됐 다. 이날은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권남계 전도사 가 ‘신천지의 포 교방법과 미혹교 리’를 주제로 발 제했다. 93년 신천지에 빠져든 ‘아픈’ 경 험이 있는 그는 “2000년대 들어서 신천 지의 미혹은 이전보다 치밀하고 간교하 게 진행 중”이라며 “2018년 기준으로 20 만 2899명이 신천지에 소속된 걸로 파악 됐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지인이 직접 포교하는 것”에서 “포교 대상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 신천지 지 부에 정보를 전달한 후 3명이 팀을 이뤄 접근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진화 했 음을 밝혔다.

현재 신천지에서 주로 했던 방법은 다 음과 같다. 봉사단체 가령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쌀 나누기 등이 있었고, 동화 구연 배우는 위장 문화센 터, 예비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후배 멘 토링, 영어 스터디, MBTI 검사를 기초 로 설문지 조사 등이 있다.

한발 진화된 방법은 앞서 권남계 전도 사가 소개했듯, “신천지인들이 팀을 이 뤄 접근해 ‘어제 밤 꿈에 ○○님이 보았 는 미혹은 이전보다 치밀하고 간교하 게 진행 중’이라며 “2018년 기준으로 20 만 2899명이 신천지에 소속된 걸로 파악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천지는 숨 쉬는 것 빠곤 모두 거짓말”이라며 “죄책감 없이 속임 수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구나 그는 “신천지의 구원관으로 교제하 기 쉽기 때문에, 권사, 집사 등 양질의 기독교인들을 타깃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전도사가 밝힌 새로워진 신천지의 포교 수법은 무얼까? 그는 “신천지 소속 지인이 포교 대상의 인적 정보를 신천지 내부에 공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릴 교인은 한 명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미혹교리를 처음 제시하 면서, 신천지 복을 방으로 인도한 후 성 경공부를 시작 하게 된다”며 “처서히 가 랑비 웃 짓듯 신천지 교리에 세뇌당하는 것”이라 소개했다. 결국 그는 “‘이만희가 이 시대의 보혜사 구원자’라는 중심교리 는 신천지 복음방의 미혹교리 때문에 받 아들이는 셈”이라며 “모든 건 신천지의 성경공부에서 시작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천지가 복을 방으로 유도 하는 논리는 무엇일까? 권 전도사에 의 하면, 신천지는 마태복음 7:22을 인용해 “주여 주여 하며 믿음만 내세우는 신앙 으로 구원 받지 못 한다”고 겁박을 준 다. 이어 신천지는 호세아 4:6을 인용해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 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재차 호세아 6:6 을 빌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바란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신천지는 “이 지식을 우리 복음 방에서 제대로 알 수 있다”면서, 곧바로 예베소서 4:13을 빌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 어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하면 마 태복음 7:24을 슬그머니 덧붙이며 “이 지식을 듣고 직접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 신천지는 ‘구원의 확 신’이 없는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한 다.

이 대목에서 권 전도사는 “신천지는 지식과 행함을 중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 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고 주장한다”면서 “결국 이 지식을 얻

기 위해 신천지 복을 방으로 오라는 포 교방식을 쓴다”고 했다. 또 그는 “신천 지는 이 지식을 결국엔 행해야지만 구원 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 한다”며 “이 지식은 곧 ‘이만희 교주’를 아는 지 식이고, 행함은 이 지식을 포교해 사람 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것”이라 설명 했다.

결국 신천지 복음 방에서 들은 미혹교 리로 인해, 점점 ‘이만희 교주를 보혜사 및 구세주’로 여기는 셈이다. 권 전도사 는 “만일 교육받는 사람이 ‘왜 복음방은 비밀스럽게 운영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신천지는 잠언 12:23을 인용해, 복음방 을 비밀스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한다”고 했다.

즉 권 전도사에 의하면, 신천지는 잠 언 12:23을 빌려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 을 감추고, 미련한 자는 지식을 전파 한 다”며 “우리에게 들은 말씀은 매우 귀중 한 것이기에, 배운 그대로 가감 없이 전 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신천지는 “잘못 전하게 되면, 영혼을 죽이는 살인 자가 될 수 있다”면서 “영혼을 죽이고 싶지 않으면, 이 복음 방에서 제대로 배 울 때까지 지식을 감추는 게 중요하다” 고 말한다. 하어 신천지는 “100일 동안 만 복음 방에서 이 지식을 알 때까지 비 밀스레 감출 것”을 포교대상에게 제안한 다.

뿐만 아니라 권 전도사는 “신천지는 마태복음 13:44을 빌려 ‘천국은 마치 밭 에 감춰진 보화이며, 예수께서는 보화 를 발견하면 숨길 것’을 말씀하셨다”면 서 “보화 같은 신천지 지식을 발견하면,

숨기는 것이 지혜”라는 신천지의 수법을 재차 설명했다.

결국 그는 “신천지 복음 방에서 계속 성경공부하면, 가랑비 웃 짓듯 신천지에 세뇌 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그 림 비밀 모인인 복음방 교육이후, 신천 지 센터의 정규교육 과정에 돌입 한다” 며 “1주일에 4번 성경 공부하며, 신천지 공식 지정 건물에서 교육 받는다”고 설 명했다. 아울러 그는 “100명 수용 가능 한 강의실에서 6~9개월 정도의 집단 세 뇌 과정을 밟는다”며 “2달 이후, 센터에 서는 ‘우리가 바로 신천지’라고 고백하 면서, ‘포교하기 위해 일부러 작정했다 ’고 정체를 드러낸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센터에서 1개월 교육받은 사람은 신천지에서 견져낼 수 있다”며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세뇌가 돼 쉽 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짧게 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 이상 이단 상담 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에 그 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에 빠졌다가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도 제안했다.

한편, 권 전도사는 신천지 센터의 정 규 교육 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 다. 그는 “1주일에 4번 성경 공부 한다” 며 “개혁한글만 고집하는 데, 이유는 바 로 번역이 신천지교리와 딱 들어맞기 때 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신천 지는 주석 없는 개혁한글만 강요 한다” 며 “주석은 절대 보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센터의 정식 교육을 거친 후, 권 전도사는 “신천지 교회에 입교 한다”

고 밝혔다. 이 지점에서 그는 “교회에 들어가기 전 수료식이 있는데, 이 때 교 주 이만희를 만날 수 있다”며 “다만 조 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 조건이란 바 로 “수료식에 참여하기 위해선 1명 이상 포교가 필수”라고 그는 강조했다.

일례로, 그는 “작년 신천지 부산 지부 에서 4,500명이 수료했다”며 “그들이 수 료를 받기 위해 추가로 5,200명을 인도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수료를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90점 이상을 맞 아야 통과인데, 결국 신천지에서 배운 교리와 뜻을 모두 외워야 가능한 셈”이 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요한일서 4:1을 인용하 면서, “사도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 고, 분별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며 “거 짓 영, 진리의 영이 뒤섞여 있는 이 시대 에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직 분과 신앙 연수가 영적 분별을 결정하지 못 한다”며 “시대가 악랄수록 더욱 영 적 분별이 신자들에게 요구된다”고 역설했 다. 또 그는 “교회는 신자들에게 성경 문맥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말씀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며 “번역이 잘 된 성경을 읽는 것도 필수”라고 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 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 라”(요한일서 4:1)

뒤이어 이단대책위원회 상담소장 진용 식 목사는 ‘안상홍중심회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를 발표했다.

노형구 기자

“중국은 탈북 ‘난민’ 강제복송 중지 하라” 탈북동포회와 선민네트워크 명동 중국대사관 앞 집회



©선민네트워크

‘탈북동포회’(회장 한금복)와 ‘선민네트워크’(대표 김규호 목사)에서는 3월 13일 오후 2시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강제복송중지 호소하는 수요집회 제 450차 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2008년 9월 3일 북경올림픽 직후 탈북민들이 자신들을 휴대하고 필박하며 심지어는 강제노역, 인신매매, 강제복송 등으로 고통을 안겨준 중국에 대한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하여 용서하고자 개최했다. 또 중국이 세계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로서

세계 가운데 존경받는 선진 중국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담겼다. 하여, 선진 중국이 유엔의 상임이사국과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으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복송을 중지해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이 원하는 곳을

로 갈 수 있도록 호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450 차 집회에는 내년에 있을 500차 집회에 설치를 목표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탈북소녀상’ 제작 모금 운동을 다시 시작하며 ‘탈북동포회’의 ‘고향의봄합창단’이 ‘고향의 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곡으로 거리모금 특별공연도 함께 가졌다.

인사말로 한금복 탈북동포회 회장은 “지난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11번째 진행되고 있는 수요집회가 450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10년 전 처음 집회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집회를 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월이 지나면 중국도 발전을 할 것이기에 강제복송과 같은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오늘도 여전히 강제복송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제발 탈북민을 강제복송하지 말고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연대발언에 희망무지개 대표 이영일 목사가 발언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라며 “따라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복송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그는 “강제복송은 살인행위”라며 “중국정부의 잔인한 살인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곧바로 선민네트워크 대표 김규호 목사가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450번째 서신을 낭독했다.

관계자는 “내년 5월로 예정되는 500회 집회에는 2012년 추진하다 모금실패로 중단된 탈북소녀상 건립을 다시 추진 한다”며 “또 탈북민을 상징하는 에델바이스(꽃말 용기, 인내) 배지를 개당 2천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는 “6월과 10월 중 탈북 동포회 고향의 봄합창단 모금 특별공연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탈북동포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기독교 탈북민들의 자치모임으로 2007년 6월 7일 결성되어 현재 300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탈북난민구호와 국내정착을 돕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인신매매와 성노예화로 고통당하는 탈북여성들의 긴급구출을 위한 ‘원들러 프로젝트’와 북한

식량직접지원 운동인 ‘두만강 프로젝트’, 국내 탈북민 정착을 위한 ‘한마음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탈북동포회’는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중국을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북경올림픽 D-1년 이었던 2007년 8. 8일부터 6차에 걸쳐 ‘올림픽성공개최 기원 및 탈북난민강제복송중지호소 집회’를 가진바 있다. 나아가 이들은 올림픽이 개최된 후 2008년 9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선진중국기원 및 탈북난민강제복송중지호소 수요집회’를 가져왔다. 선민네트워크는 ‘선택된 민족, 선진민족, 선한민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86세대 목회자 중심의 기독교시민단체로 2010년 11월 1일 결성되어 탈북난민복송중지운동을 비롯한 북한인권운동과 선진화운동, 중독예방운동, 기독교유권자운동, 탈동성애인권운동 등에 적극 참여해왔다. 더불어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이 세계 가운데 존경받는 선진국가, 선진민족이 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탈북동포회와 함께 탈북난민 강제복송 중지호소 수요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재정 어려워도 미자립 교회도 “선교 동참”



©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3일 GO 선교회에서 선교모범 교회에 대해 수상식을 개최했다. 선교모범 교회는 다음과 같다. 경신교회 (김종구목사), 복된교회(김영주목사), 복있는교회(오경봉목사), 사랑교회(문창성목사), 새생명교회(이요셉목사), 주영광교회(이천석목사), 참좋은교회(김진인목사), 초봉교회(이인희목사), 합당한교회(성대용목사)이다.

이번 선교모범 선정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P국 선교사를 공동파송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매주 금요일에 모여 함께 선교현지의 상황을 나누며 기도하고 각 교회로 흩어져 다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 미자립교회도 함께 연합함으로써 세계선교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모범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도 복음의 사역에 눈을 뜨므로 어떻게 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복음의 활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목사(복된교회)는 “구체적 선교 현장의 기도제목을 주보에 공지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민감해졌다”고 고백했다. 이번 선교모범 교회 선정식을 놓고, KWMA 측은 “단지 중대형교회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전체 성도가 열 명이 안되는 작은교회들이 복음에 빛난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이 큰 모범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KWMA 측은 “조국 다수의 교회에 전도와 선교적 열기를 일으키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KWMA는 곳곳에 있는 선교모범교회를 찾아내 격려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모임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의료인의 소진(burnout)관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3일 GO 선교회에서 선교모범 교회에 대해 수상식을 개최했다. 선교모범 교회는 다음과 같다. 경신교회 (김종구목사), 복된교회(김영주목사), 복있는교회(오경봉목사), 사랑교회(문창성목사), 새생명교회(이요셉목사), 주영광교회(이천석목사), 참좋은교회(김진인목사), 초봉교회(이인희목사), 합당한교회(성대용목사)이다. KWMA는 2030년까지 50% 이상의 한국교회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가치를 발판 삼아, 아래 지역교회에 선교적 열기를 일으키고자 선교모범교회 현판을 제작하고 모범교회에 대해 수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교모범 선정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P국 선교사를 공동파송하였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매주 금요일에 모여 함께 선교현지의 상황을 나누며 기도하고 각 교회로 흩어져 다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다. 미자립교회도 함께 연합함으로써 세계선교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모범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도 복음의 사역에 눈을 뜨므로 어떻게 교회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복음의 활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영주 목사(복된교회)는 “구체적 선교 현장의 기도제목을 주보에 공지하고 성도들과 함

께 기도했을 때 성도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민감해졌다”고 고백했다. 이번 선교모범 교회 선정식을 놓고, KWMA 측은 “단지 중대형교회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전체 성도가 열 명이 안되는 작은교회들이 복음에 빛난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사실이 큰 모범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KWMA 측은 “조국 다수의 교회에 전도와 선교적 열기를 일으키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KWMA는 곳곳에 있는 선교모범교회를 찾아내 격려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모임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은혜 기자

서울경제인협회, 자살예방캠페인 벌여

서울경제인협회는 3월 13일, 서울경제인협회 회의실 및 인근 거리일대에서 자살예방교육 및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교육은 한국생명위협학의 생명존중 가치구현을 위한 자살예방캠페인 프로그램인 ‘C.A.R.E Program’을 통해 실시됐다. 한국생명위협학 하상훈 원장은 기업이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공감하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며, 서울경제

인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 자체가 큰 성과라 했다. 엄정희 회장(서울경제인협회장)은 한국생명위협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예방캠페인(C.A.R.E) 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자살위험신호를 인식하여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그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대처방법을 알게 되었다며, 회원사들의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진들이 먼저 나선 것은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평가

했다. 서울경제인협회는 서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서울 25개구에 지회를 두고 회원사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하여 서로 협업하고 상생하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 회원들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업 상호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구조를 갖추어 나가길 기대한다.

노형구 기자

다산의 마지막 공부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은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마음공부의 ‘끝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용재 지음 | 값 15,000원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 첫 구절 중에서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조용재 지음 | 값 15,800원

창원출판

출간 즉시 전국 베스트셀러

TEL 02-546-4341 FAX 02-546-8053 www.chungrim.com

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작명을 통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섭고도 맹렬한 저주가 연이어지는 와중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라는 일견 문맥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이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전까지의 문맥은 오로지 ‘저주’와 ‘멸망’ 일색입니다.

심지어 바로 그 다음의 8절과 9절에서도 여전히 ‘로루하마’와 ‘로암미’라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만 절절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불쑥 들어오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 하겠고”라는 희한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극히 미워하시면서도 결국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람을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애증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극적인 구원은 과연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그것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무슨 정치적, 군사적 구세주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는 예언에 나오는 “한 우두머리”를 통해 성취될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번역된 말은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인데,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장자 유다 지파를 통해 나타날 메시아

야말로 절망적인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그러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1장 서두에서부터 이미 암시를 해왔습니다.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본인이 북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조 유다의 왕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창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7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호세아가 자기 민족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유일한 구원의 희망을 오직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메시아’ 그 한 분에게만 집중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즉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분은 비단 남조 유다 백성뿐 아니라 북조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구원해 주실 것을 호세아는 굳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앞서 4절에서 ‘하나님이 흠으신다.’는 뜻으로 쓰였지만 여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저주를 받았던 그 두려움이 컸던 만큼, 그 저주에서 벗어나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 감격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또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도저히 구원받을 이윽나 가망성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방적으로 한순간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독생자를 ‘구원의 통치자’ 곧 메시아

로 보내어 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 갚아 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그냥 공짜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된 구원은 ‘오직 은혜’요 ‘전적 은혜’에 의한 것임 따름입니다.

원래는 “로루하마(긍휼 없는 자)”라 불리던 백성이 하루아침에 “루하마(긍휼 있는 자)”가 되고, 당연히 ‘로암미’(내 백성 아닌 자)일 수밖에 없던 자들이 ‘암미’(내 백성)로 회복된 것은 오직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점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100퍼센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자의 구원받은 감격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암미’에서 ‘암미’로 넘어 가는 과정이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조금씩, 우리의 선행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처럼 순전히 ‘자신의 공로’에 기인해서 완성되는 구원에는 이와 같은 큰 감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떤 보람이나 성취감 정도의, 순전히 자기중심의 자화자찬만 남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구원이라는 것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할 아무런 동기도, 이유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도저히 구원받을 이유라거나 필결만큼도 없이 ‘완전 타락’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스스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아니 영벌을 받

아 마땅하고 임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던 ‘음란한 여인’ 같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총족시켜 버리신 대속의 조건에 의해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공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죄인에게는 전혀 뜻밖의 사람이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게 된 신자 쪽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은 그저 넘쳐 솟구치는 감격 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한 310장)라고 놀라며, 오로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발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한 143장)라고 충격적인 감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어떻게 이런 감격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 내려고 하는 ‘무당 종교’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신과 흥정하는 줄다리기만 있고 ‘주시는 만큼 바치겠다.’는 냉정한 ‘give and take’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성찰과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엘서비스 종교’에 그 무슨 감격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줄 모르는 끝없는 방황과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지 않는 교만만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전부를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아는 성도의 입에서는 그런 계산적인 복태나 외식적인 열ભ 대신에 오직 감격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하나님을 향해 늘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약조조건과 역조조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자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심령으로 체험함으로써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애증(愛憎)’이라는 것은 실상 인간관계에서는 변덕과 변심의 산물이며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이처럼 오묘하고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애증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일견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만 보이는 까닭에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도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들은 원래가 사람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우상종교이며, 그런 까닭에 사람의 생각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그들의 교리나 경전에 애당초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런 종교들은 기껏해야 공의나 긍휼,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할 수 있을 뿐이었으며, 사실상 그렇게 나누어 놓고서도 그 하나하나를 제대로 완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우상종교의 공의는 기껏 ‘사회 정의’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 뿐, 각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인생의 악을 공의롭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인본주의 종교의 긍휼은 기껏 ‘이웃 사랑’의 수준에서 끝날 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타낸 이 놀랍고도 무궁한 은혜의 비슷한 것에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종교만이 이처럼 공의와 은혜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엄하게만 다스리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아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방임하는 아버지가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자식인 까닭에 그 자식이 저지르는 잘못을 미워하면서 고쳐 주려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 자식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인 까닭에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는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무섭고도 당연한 저주가 선포된 바로 ‘그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정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처럼 의롭고도 긍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악을 지극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자신이 절망적인 ‘로암미’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당신의 택자를 끝까지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루하마’의 자녀가 됨으로써,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 구원의 아버지께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논평

아이돌 외모 규제에 나서면서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이번에는 전국 초·중·고에 배포한 학습 지도안에 남성 혐오와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노골적으로 페미니즘 사상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도안에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는 경고하면서 남성 혐오는 무시하고, 남성을 혐오하는 언어 또한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이 지도안은 법의 노조인 전교조와 노골적으로 초등학교에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초등성평등연구회와 협력하여 발간한 엽기에 당연히 페미니즘 사상을 옹호하는 내용을 실을 수밖에 없고, 이는 여가부의 정책이 명백히 페미니즘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1조원이 넘는 여가부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현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대국민 페미니즘 사상 쇄뇌 정책이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성 혐오를 부추기고 역차별을 주장

하는 페미니즘은 이미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페미니즘 사상의 사회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조직 중에 그 어느 부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폐자’나 ‘해체’의 국민 요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가부에 대해서는 조직의 ‘폐자’와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다.

먼저, 여가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는 페미니즘의 형성과 변질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기 페미니즘은 ‘여권신장주의’라고 명명되며, 여성들의 접근이 배제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어졌다. 투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명시적인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는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일어났고 이는 남녀차별을 시정하는데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페미니즘의 근거는 남녀평등의 가치이다. 남성에 비해 그 권리가 현격히 제한되는 여성의 권리를 남성이 누리는 만큼 당연히 누려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사회가 변해서 완벽한 남녀평등이 성취되면 소멸되는 사상이

다. 아이러니하게도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적용되어 사회운동이 활발해지고 사회가 변화될수록 페미니즘은 약화되고 축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풍요와 민주적 정치체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이 목표하던 남녀간의 제도적 평등이 크게 성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약화되지 않았다. 아니, 약화될 수 없었다.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력들은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쌓아온 명성과 권력, 조직력, 재력 등이 약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제도적 평등을 주장하던 이들은 문화적 평등에 대한 주장으로 옮겨갔다. 제도 개혁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 궁극적인 평등의 실현이라는 주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평등은 제도적 평등에 비해 매우 추상적인 목표였다. 사회 문화와 인간 의식의 변화를 실측하기는 어렵고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목표는 조직 운영과 투쟁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설정

이 필요했고, 결국 주체는 ‘여성’, 대상은 ‘남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페미니즘 사상의 약화를 막고 페미니즘 조직의 투쟁 동력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 운동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남성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페미니즘 세력이 주장한 제도적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세력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명시적이며 수치화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던 그들은 결과의 차이를 시정하기 위해 결과의 평등을 사회에 강요하기 시작했다. 국가기관과 대기업 등에 각종 ‘여성할당제’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 세력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 일례로 2015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188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성평등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위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4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역차지수에서 대한민국이

116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역차지수는 국가간 발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남녀간의 차이만을 순위로 집계한 데이터로서 이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변질 된 페미니즘은 결국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초기 페미니즘의 주장과 흡사한 이퀄리즘의 등장은 페미니즘 변질에 대한 반발 중 하나이다. 이퀄리즘은 페미니즘이 더 이상 남녀평등을 주장하지 않고 남성 차별적인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것을 비판하며, 남녀평등의 가치를 사수하려는 움직임이다.

또한 변질된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주체인 여성에게도 외면받기 시작했다. 지난 달 18일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대국민 여성 위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공감을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여성 위원들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지 말 것’, ‘성별을 떠나 능력 위주의 인재 발굴’ 등의 조언을 들어야 했다. 이는 여성에게도 지지받지 못하는 변질된 페미니즘을 신주단지처럼 붙잡고 있는 여가부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

고 위험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을 혐오해도 그것은 혐오가 아니라 그 주장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조직이 아니다. 아이들의 외모를 규제하는 여가부는 더 이상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런 여가부의 행태를 암묵적으로 옹호하는 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 번 폐달을 밟기 시작한 자전거는 폐달을 멈출 수가 없다. 페미니즘이라는 폐달을 밟은 여가부도 앞으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정부조직에 대해 ‘해체’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정권에 대해 국민은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이겨내다. 나아가다.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광고심의필 : 2018-1465-00050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인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